



LG디스플레이, 임직원 자녀 1500여명에 입학선물
LG디스플레이는 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임직원 자녀 1500여명에게 한상범 부회장의 축하카드와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준비한 선물세트는 각종 학용품, 초등학교 권장도서 등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 임직원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물세트는 이달 말까지 각 가정에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S-OIL,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5000만원 후원금
S-OIL은 서울사회복지협의회에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S-OIL은 2010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사회복지협의회와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드림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10년째 화재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을 후원해 오고 있다. /S-OIL



NH투자증권, 리치플래닛과 마이데이터 협력 강화
NH투자증권은 지난 19일 리치플래닛과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마이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Digital) 자산관리 서비스 공동 개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의 추진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NH 투자증권 안인성 상무(오른쪽)와 리치플래닛 남상우 대표(왼쪽)가 MOU 체결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공영홍소핑, '통일나무심기 마라톤' 총감독에 김명곤 전 장관 위촉
공영홍소핑은 오는 5월 26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19 통일나무심기 마라톤' 및 '통일나무기부 콘서트'의 총감독으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감독은 공영홍소핑 '통일나무심기 마라톤'과 함께 펼쳐질 '통일나무기부 콘서트'의 기획부터 세부 연출까지 마라톤 관련 행사 프로그램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공영홍소핑

넷마블문화재단 저소득층 아동사업에 임직원 기부금

6145만원 바보의나눔 등에 전달
넷마블문화재단은 넷마블 임직원과 함께 만든 기부금 6145만원을 바보의나눔과 구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전달하는 '넷마블나눔 기금 전달식'을 19일 넷마블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임직원의 정기기부로 조성

/김나인 기자 silkni@



진성오 소장의 심리카페

최근 대학을 가기 위한 부자들의 교육열을 다룬 드라마가 화제였다. 필자는 임상현장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 한국 사회의 양끝을 다 보는 기회가 많다. 유명 연예인의 자녀부터 두 부모가 모두 지적 장애여서 조부모에게 어렵게 성장하여 한 끼 밥만 먹어도 행복한 여자아이까지. 삶의 양끝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 어려운 경험일 것이다.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혹은 개인적 호기심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학벌에 높은 신분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사회적으로 계층을 나눌 때 진정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위치의 사람들까지 만나본 것이다. 그 양끝을 가져야 할 일종의 척도로 놓고 본다면 나도 어딘가에 위치 지어져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위로 올라다 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 끝과 한이 없으며 아래로 내려다 봐도 나보다 비참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듯해 그 바닥의 끝이 없어 보인 사람들도 있다. 1등부터 끝 등까지 등수를 나누거나,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가진 것이라고는 뭉뚱이 하나지만 그 초차 썩어 들어가는 사람까지 만나봤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SKY 캐슬 지옥

없는 척도의 긴 줄을 보게 되면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올라가는 것의 정도나 도달해야 할 곳에 대한 목표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다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 올라가려는 것은 그 끝에 남겨져 있을 공허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sky는 하늘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그 하늘이 아닌 하늘에 오르기 위해 자식에게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찰 수도 있고 질투 아닌 질투에 자식에게 그러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투정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필자도 약 10년 전부터 이미 하늘을 넘어서서 담쟁이 넝쿨 캐슬을 행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기는 하였다. 물론, 그 담쟁이 넝쿨을 아이비리그 라고도 혹자는 부른다. 이런 면에서는 TV 드라마의 '하늘'은 그들에게 감도 안 되고 어떤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건 마치 영어를 잘 하면 끝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돈 많은 재벌 집에 시집 간 여성이 시부모와 시누이들이 모여서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로 서로만 알아듣게 대화할 때 느껴지는 열등감과 자괴감 같은 감정을 유발할 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자괴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분들에게 그냥 운이 좋아서 다양한 사람만 나본 필자가 희망찬 이야기를 하나 해드

린다면, 스카이 캐슬이던 아이비리그이던 인간은 모두 자신들만의 '마음의 지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와 상담했던 내담자들 중에는 그렇게 원하는 담쟁이 넝쿨의 미국 대학을 가도 이후에 접해야 할 나보다 더 '인싸(in group)이라는 의미인 걸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에 속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던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보여도 그조차 또 다른 자신만의 지옥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재벌집의 자녀가 망가지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뭐 없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당사자 말고는 절대로 나눌 수 없고, 타인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필자는 더럽고 덜 떨어져 보이고 그리고 무능해 보이는 지적 장애 아들이 손위 권 사랑 하나로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 부러움과 슬픔을 같이 느낀다. 아마도 그 부러움은 작은 사랑 하나에 그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고, 슬픔은 그 작은 행복마저 어찌면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어떤 생각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당신의 마음연구소장

농협은행, 정월대보름 맞아 말벗서비스 봉사활동

남영수 부회장 등 임직원들 부천 독거노인지원센터 방문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디지털금융부서 임직원과 말벗서비스 상담사들이 경기도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말벗어르신 무병장수기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협은행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말벗서비스와 연계했다. 말벗서비스 담당 상담사들은 독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의 시간을 나눴으며, 함께 웃음을 즐기고 어르신들께 나물, 부럼 등 정월대보름 음식을 대접했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디지털금융부서 남영수 부회장은 "올해로 만 11년째 접어든 말벗서비스는 홀로 계신



NH농협은행 남영수 부회장(오른쪽 세번째)과 최명호(오른쪽에서 네 번째)고객행복센터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부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웃음을 즐기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삶의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7년 연속 1위 은행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중에서도

특히 농업인 복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소방청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정남구 △소방청 119구조과장 김태한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장 박성열 △중양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성주 △중양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 강호주 △중양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장 송호영 △중양 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이재순 △중양119구조본부 영남119투수구조대장 성호선 △부산광역시 부산소방학교장 임정수 △광주광역시 광주소방학교장 최홍영 △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장 방장원 △소방청 운영지원과 임준옥 △소방청 소방정책과 김문용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파견 성석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경수 △경상남도 소방본부 최재민 이동원

- ◆한국주택협회 ◇1급 전보 △기획본부장 김의열 △정책본부장 김동수 △산업본부장 박수현 △경영본부장 김대성
- ◆CEO스코어데일리 △금융증권부장 정경진
- 부음
- ▲조경옥(사양교회교회 권사)씨 별세, 이기성(SBS 보도본부 부국장)씨 부인상, 이종현(대학생)·이승현(대학생)씨 모친상, 조남훈(원광경희한의원 원장)씨 누나상, 이성룡(취유선 전무이사)씨 형수상 = 20일 오전 9시20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2-2227-7556
- ▲최옥자(세종대학교 설립자)씨 별세, 주장건(대양문화재단 이사장)·주경란(세종대학교 명예교수)·주경은(전 한국여성크리스천클럽 회장)·주명

- 건(세종연구원 이사장)씨 모친상, 박현두·임승빈씨 장모상, 전해옥씨 시모상 = 20일 오전 10시26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2-3410-6917
- ▲위숙례씨 별세, 주창돈(쑤코리아트레블즈 대표이사)·주집돈(주공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주세돈(전 교사)씨 모친상, 문호선·박금분·나미정씨 시모상, 주민수·주영수(쑤트웨이항공 부기장)씨 조모상 = 20일 오전 5시35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20일)·3호실(21~22일), 발인 22일 오전 7시. 02-3410-6906(20일)·02-3410-6903(21~22일)
- ▲성낙길씨 별세, 이용균(대전시 자영업협력관)씨 모친상, 홍미애(대전시청차미디어센터장)씨 시모상 = 19일 오후 10시 20분,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1일 낮 12시. 042-611-3980